

제8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문제와 부모교육

이상주/울산대 총장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

김재은/이화여대 교수

지역사회에서의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

김신일/서울대 교수

# 청소년 문제와 부모교육

이 상 주

울산대 총장

## 1. 젊은이들의 처지와 고민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인생주기의 과도기에 처한 젊은이 들이다.<sup>1)</sup> 그들은 어린이로 취급받기에는 너무 성숙해 있고 성인대접받기에는 아직 어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세대이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는 거의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미혼으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는(예로서, 형사책임, 투표권, 병역의무, 면허취득 등에 있어서) 아직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의 중요한 역할 구조에서 밀려나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일종의 주변집단이며 직업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적 의미에서도 “강요된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대기 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은 계층, 성별,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2~13세 경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졸업, 취업, 군입대,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의 시기가 일정치 않아 청년기가 끝나는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년기의 연령을 대체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시기인 12~22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남아이든 여아이든 10세 정도만 되면 농사나 가사를 돕는 일손으로서 한 몫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혼제도에 의해 10대 초에 벌써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기가 불분명하였다. 이 점은 서양 사회에서도 비슷하였다. 에리스(Philippe Aries)에 의하면 중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년기는 물론 아동기마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離乳)만 끝나면 어린이들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되었으며 어른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일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기가 연장되고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 역할을 오래 동안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다. 청소년의 불만과 소외감의 근원도 상당한 정도가 성인 역할 “지불연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 그러한 목표를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단지 학교 안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학업을 통하여 그러한 목표 달성을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지난날 식민 통치나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영광스러운 청소년상이 남긴 엘리트주의적 자기 역할의식에 끊임없이 고무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직접적 정치 참여는 철저히 제한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적욕망은 절정에 달해 있고 주의 환경은 그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지만 그들의 직접적 성행위는 엄격한 사회규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에 대한 의존의 쫓꼭지를 오랫동안 그대로 물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넘어야 할 “제 2의 이유기” 또는 “사회심리적 이유기”는 20세가 훨씬 넘도록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반항과 반문화(counterculture),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청소년들의 일탈적 동배집단과 거센 정치운동 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주변성과 그것으로 인한 욕구 좌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흔히 “반항의 세대”라고 한다. 그들의 반항은 결코 “이유없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있는 반항이다. 젊은이들의 반항은 그들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아정체감을 갖기 위한 성장의 몸부림이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억압하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학업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들은 직업생활과 가족부양의 직접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고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이상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상주의적 기준에 어긋나는 성인들의 권위와 그들의 가치관, 기존의 사회제도와 사회현실을 회의하고 거부한다. 그들의 눈에는 기성세대가 나약한 현실타협주의자요, 믿을 수 없는 위선자로 비친다.

전통사회에서는 친족 집단의 유대가 강하고 성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밀접히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락의 성인이나 집안의 어른은 젊은이의 동일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젊은이들은 동년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회구하게 되고 그들 속에서 동일시 대상을 찾고 그들의 집단 규범에 따르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보상과 심리적 만족감을 친구 집단에서 찾고 그들 속에서 개인 문제에 대한 상의 대상자를 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심리적 “안식처”를 성인 세계에서 보다는 그들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친구들과의 친교활동이 크게 제한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각종 학생 서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정치적 저항운동을 위한 강력한 학생조직인 결성·유지되는 중요한 한 원인은 그동안 입시준비 교육으로 억눌렸던 사회적 친교 욕구를 한꺼번에 발산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집단 범죄는 부모와 교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적과 진학과 출세에 대해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통사회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부락의 규범적 영향을 주고 받고 자랐으며 사회의 가치규범은 비교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산업사회에서는 부모나 부락 성인의 청소년들에 대한 규범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학교, 친구, 대중 매체 등에 의한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그러한 다양한 사회화 기관이 제시하는 여러 행동기준과 역할 모형이 서로 상치하고 갈등하여 청소년의 통정된 자아형성에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되었다. 학교 교사가 강조하는 검약한 생활과 TV의 상업광고가 강조하는 소비지향적 생활이 서로 다르고, 정부의 홍보물이 전달하는 시민적 가치와 가족과 이웃에서 체험하는 민속적 가치가 서로 어긋난다. 교과서에서 읽는 민주주의와 신문에서 읽는 정치 현실은 불일치하고, 친구 집단에서 접하는 비행적 문화와 교회에서 듣는 도덕적 설교가 서로 틀린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이

와같은 심한 가치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가치관이 혼란된 성장 환경 속에서 젊은 이들이 통일된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 2.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

인생의 각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성장의 과업이 있다. 가령, 유아기에는 걷기, 대소변 가리기, 젖떼기 등의 기초적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에릭슨의 말처럼 어머니를 위시한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발달과업은 자연적인 인간 성장의 과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기대, 사회계층, 문화에 따라 달리 성장될 수 있다. 예로서 “남녀칠세부동석”은 과거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 설정된 특수한 발달 과업이었다.

그러면 청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루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발달 과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아 정체 의식”의 형성이 청년기의 발달 과업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생각된다. 청년기에 확립해야 할 자아 정체 의식의 중요한 4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적 자아이다.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 특히 성적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감을 극복하고 그러한 변화를 정상적인 성장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기에 갑자기 강화되는 성적 욕구를 절제하고 그러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에 따라 표현되는 성윤리 의식과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성에 관련된 생리적 지식도 익혀야 하며 늦어도 결혼전까지는 피임 방법에 관한 지식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성에 대한 환상적 자망이나 열등감을 극복하는 자신의 성을 떳떳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남성다운” 또는 “여성다운” 언어와 행동과 역할을 습득하여야 한다. 젊은이들은 결혼 후의 역할, 즉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예상적 사회화도 적절히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화에는 그들 자신의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 모형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부모와 영화나 소설에 나타난 성인들의 모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부부나 부모가 되기위한) 역할 학습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에 성적 자아의 발달의 위한 이와 같은 과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다음 인생 단계에서 건전한 성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적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과 이성관계와 성윤리가 빠른 속도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민주화와 도시화와 같은 사회 변동에 의해서 초래되기도 하지만 외국의 영화, TV 프로그램, 잡지 등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해외여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금욕주의적 유교문화의 전통속에 살아온 한국의 성인들은 성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이며 자녀들과의 성문제에 관한 대화를 타부시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대체로 친구들이나 잡지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자녀들의 개방적인 성관념에 대하여 당혹스러워 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성역할 학습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 문제점은 남성 역할 모형의 부재현상이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남성의 가외취업 경향에 따라 자녀의

대해 아버지의 신체적, 심리적 존재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아버지는 과거와 같이 하루종일 사랑방에 버티고 있는 그런 위엄있는 존재가 아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상으로 자녀에 대해 엄격하기 보다는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난날의 “어부자모”가 이제는 “엄모자부”가 되고 “엄모무부”가 된 것이다. 남성 역할 모형의 결여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교사의 여성화 현상이 그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남성 역할 모형의 부재현상은 어린이들이 남성다운 행동을 배우는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둘째의 측면은 직업적 자아이다.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직업은 사회적,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회적 위세와 권력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직업이 부모의 직업이나 계층이나 주거지역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었고 그 준비 과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직업구조가 분화되고 전문화 됨으로써 직업 선택과 직업준비 교육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작업에 대한 건설한 태도를 습득하는 일이다. 작업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한 비인간적인 고역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서 그 내재적 가치를 인식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인의 작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직업적 자아의 핵심적 요소는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자아 역할의식이다. 유아기와 소년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환상적인 자아 미래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그러한 환상적 자아 미래의식을 더욱 현실화하고 구체화 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성인의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선택한 직업분야의 지식과 기능, 태도와 직업윤리의식을 습득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성적자아의 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작업과 생활이 분리되고 직장과 가정이 격리되는 사회에서 사는 오늘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성인들이 땀흘려 일하는 작업세계를 관찰하거나 그 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젊은이들은 성인들로부터 직업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의 체험을 더 자주 듣는다. 그들의 TV나 신문을 통하여 건설한 직업적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는 대중 스타의 화려한 등장과 불로소득자의 일확천금에 의해 더 강력한 유혹을 받는다.

젊은이들의 직업적 자아의 발달을 방해하는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80~90%에 이른다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의 수용능력이 지방자의 반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에게 입시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에 실패한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직업준비도 없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젊은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류교 합격에만 신경을 쓰는 부모와 입시 합격률을 높이는 업적에만 관심을 가진 교사에 의해 진로가 잘못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여러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의 연구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만성적 학생소요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젊은이들은 직업적 자아와 장래의 취업 전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취업전망이 밝거나 전문적 직업 준비를 실시하는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의 학생들보다 학원소요에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젊은이들이 형성해야 할 자아 정체성의 세 번째 측면은 사회적 자아이다. 청년기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관념과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가족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관계 속에서 가족원(부모나 형제)에 대해 맹목적으로 동일시해 온 어린이들이 청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자신의 가족과 가족원을(그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 밖의 여러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기의 어린이들이 맺은 친구 관계는 주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청년기의 젊은이들은 공동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등학교와 대학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과 역할 기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나 국가사회나 인류 공동체와 같은 보다 넓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넓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도 길러야 한다. 청년기의 젊은이들은 특히 국가와 역사와 문화, 정치 이념과 제도, 국가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의무 등에 관한 지적, 정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명확한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준비의 무거운 중압에 눌려 새로운 인간 관계를 넓혀나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입되는 이념교육으로 인하여 사회체제나 이념에 대해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 여러 정치 세력들의 서로 엇갈린 사회비판, 경쟁적 정당제도속에서의 극심한 정쟁, 사회에 관한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언론 등에 의해서 젊은이들은 통정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자아를 들 수 있다. 철학적 자아는 인생과 그 의미를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며, 갈등하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규범적 원칙이나 판단기준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철학적 자아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자아들을 통합하고 지도하여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자신에 대한 내성적 사색에 빠지는 경구가 찾아진다.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장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할 생활의 원칙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은 철학적 자아의 형성을 위한 내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춘기의 젊은이들은 때때로 심한 자기 회의와 자기부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초조와 불안에 떨기도 하고 걱정과 헌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젊은이들은 이와같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차차 정서적 안정과 균형잡힌 사회관을 찾아야 하며 객관적 판단력과 자율적 도덕성을 습득해 가야 한다. 성숙된 철학적 자아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수락했거나 선택한 생활원칙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숙된 자아는 스스로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헌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숙된 철학적 자아는 콜버그가 말한 도덕성 발달의 제 3단계인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자아

는 청년기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전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접근해 가야 할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청년기는 철학적 자아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청년기의 철학적 자아를 형성시키는 성장과정에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A메꾸기 어려운 결함이 된다.

현대 사회는 청소년들의 철학적 자아의 원만한 발달을 저해하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과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치 갈등과 역할 모호성 등은 젊은이들의 철학적 자아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밀된 교육환경, 자본주의 사회의 성취지향적 체제 등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보다는 자기 중심주의적 폐쇄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객관적 판단력과 자율적 도덕성을 구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대학과 기업체와 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갈등과 비타협적 대립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극심한 자기 중심주의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소비지향적 대중사회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집단 동조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율성에 따르는 불안과 선택과 고민을 덜어주는 작용은 하지만 자율적 도덕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할도 한다. 집단 동조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행동하게 할 뿐 자신이 가진 도덕적 원칙이나 판단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라 볼 수 있는 권위주의도 젊은이들의 철학적 자아의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다. 어린이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는 설명적인 교육방법이 일방적인 주입식 방법보다 도덕성 발달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아직도 권위주의가 널리 만연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성인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할 자아 정체意識의 몇가지 측면을 성적자아, 직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철학적 자아 등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자아 정체意識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3. 청소년에 대한 부모노릇

부모는 출생후 가장 처음 접촉하는 사람이다. 부모는 인간의 초기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촉진자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부모 이상으로 밀착된 인간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다. 부모는 개인의 경험내용과 성격 형태를 크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위세도 상당한 정도 부모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신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만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못다 이룬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어린 대리자이다. 자녀는 부모의 한정된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주는 자신의 분신이다. 그리고 자녀는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갈 가계상속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고 자녀의 실패를 자신의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요사이 부모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 역할의 수행이 어렵게 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상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부모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갈망하고 부모로부터 칭찬과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가족외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편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기에 접어든 후에도 그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때때로 친구 집단의 기대와 규범과 어긋나는 부모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부과하려함으로써 자녀들과 갈등을 빚게 된다. 둘째 이유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는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부모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질풍노도”와 같은 성장의 시련을 겪어야 할 청년기에 “입시지옥”이라 불리우는 고통스러운 관문을 통과해야 할 인간 성장의 관문과 사회제도의 관문이 청년기에 겹쳐진 것은 하나의 우연이긴 하지만 젊은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다. 셋째 이유는 급속히 변천하는 사회에서 생겨나기 쉬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세대차 문제이다.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살아온 사회적 상황과 그들이 겪은 역사적 체험이 크게 다르다.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더 높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교육의 질과 내용도 차이가 크다. 미드의 말대로 부모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 하고 젊은이들은 부모의 지도가 낡고 부적합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로서 청소년들에게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동일시를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에 접어든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동준거와 역할모형을 가족 밖에서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의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리이지만 부모는 아직도 “중요한 타자”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미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모는 가장 가까워서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성적 역할모형이 되며 그것은 그들이 장차 만나게 될 바람직한 배우자상을 형성하고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또는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성적 역할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직업적 자아의 형성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것은 아버지와(특히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아버지) 동일한 직업을 선택하는 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로서도 입증된다. 젊은 여성이 교육, 간호, 사회사업, 예술 등 가정적, 보호적, 예술적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모의 성적 역할 기대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성취를 위한 동기 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학업이나 직업에 있어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적절한 수준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하는 성취 압력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의 실시된 여러 조사연구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낮은 능력과 부모의 높은 학업적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총리실에서 7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계 10여 개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대해 가장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 높은 불만의 상당한 정도는 주위의 기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좌절감에서 생겨난 것이다. 한국의 부모는 자신들의 실현하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하여 대신 실현시키고자 하는 보상심리에 사로잡혀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 강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는 상과 별로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어린이의 특정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이나 금전과 같은 물질적 보상과 관심과 애정, 칭찬과 인정과 같은 사회심리적 보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의 제1,2단계에서 그와 같은 보상으로 도덕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지만 청년기에 해당되는 제3단계인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그러한 보상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고 도덕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케 하는 상대적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는 사회에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사회의 대변인 셈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가정에서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허용적 자녀 양육 방법과 아버지의 부재 현상은 행동 강화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부모는 가족 간의 대화와 공동 작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족간의 대화와 공동 작업은 자녀들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대사회는 가족원간의 상호 작용이 심하게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원의 가외 활동 증가, 가족의 생산적 기능 약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와 소가족화, TV 시청시간 연장 등은 가족원들 간의 대화와 공동 작업을 감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 케네디가의 식탁 토론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는 매일 신문에서 토론거리가 되는 기사를 올려놓고 온 가족의 식탁토론을 유도하였다고 한다. 김재은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은 애정과 화목감과 같은 정서적 분위기는 짙은데 비하여 지적 자극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족의 공동 작업도 자녀들에게 창조와 협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훌륭한 가정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다. 사랑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찌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제일의 조건이라고 여깁니다.……그러기에 제가 모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을 언제나 강하게 발동시키되 늘 생각하고 조절하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찌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자녀에게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배려깊고 조절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청소년들이 내적 갈등을 겪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성장을 위한 시련으로부터 쉽게 헤아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형태의 인간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 4. 부모교육이 필요한 까닭

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교사 양성기관을 가지고 있고 교사 자격증 제도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되기 위한 교육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880년대부터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소수 인종을 위한 민권운동의 전개, 결혼 가족의 증가, 제도교육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베치가 미국에서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나열한 것 중에서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심신 장애아의 부모를 위한 교육
- 2) 가족 생활과 자녀양육방법에 관한 일반적 부모교육
- 3) 결혼 직전의 미혼자를 위한 부모교육
- 4) 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에 관한 부모교육
- 5) 10대의 젊은 부모를 위한 교육
- 6)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
- 7) 건강, 영양, 성교육에 관한 부모교육
- 8) 학교 교육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 9) 어린이들의 학력과 지적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 10) 영재아의 부모를 위한 교육

위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①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협동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부모는 그것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청소년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이 얽힌 대단히 복합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이(자녀와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먼저 변해야 하고 가족간 특히 부모-자녀간에 새로운 형태의 인간 관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집중적 교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청소년의 자아 정체의식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교육, 진로지도, 정치 사회화, 도덕교육 등에 관한 기초적 개념, 이론, 방법들 알아야 한다.
- ⑤ 영재아, 지진아, 심신장애자 등 특수한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익혀야 한다.
- ⑥ 정상적 청소년의 학력 향상과 지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는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학습방법과 교과내용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 ⑦ 과거에는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혜를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이나 이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제도와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세대간 또는 이웃간 정보교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심리상담연구소가 실시하

고 있는 부모교육의 예나 미국의 일반적 경향과 같이 부모교육은 관련 사회단체나 연구소 또는 학교나 대학이 주체가 되어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모교육의 내용은 그 프로그램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서 이미 그 내용이 암시되고는 있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의 발달과 심리
- 한국의 청년 문화
- 청소년 비행과 범죄 : 현황, 원인 및 대책
- 현대사회(한국)의 제문제
- 학생 운동의 과거와 현재
- 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 관계
- 취업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진로지도
- 성교육 : 성생리, 성역할, 성윤리
- 가치 변화와 가치 교육
- 학습이론과 학습지도
- 상담이론과 기법
-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부모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 1)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동기와 청년기의 젊은 세대를 통틀어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사춘기로부터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까지의 젊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자 한다.